

2021

학생 인권단체 자원활동 모음집

2022. 2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목차

개요

결과보고서

Yuldasheva Dilnoza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심규태(서어서문학과 16)
서채영(사학과 20)	강윤희(미디어학부 18)
이예희(보건정책관리학부 19)	박민준(정치외교학과 19)
정지연(사회학과 19)	조규빈(국제학부 20)
권현지(사회학과 18)	이정현(사회학과 19)
이택훈(정치외교학과 19)	이하은(국제학부 18)
이해연(사회학과 17)	장혜선(철학과 17)
강은형(정치외교학과 20)	권유미(사회학과 19)
김예진(행정학과 19)	강채희(사학과 18)
김경서(경영학과 19)	오상흔(경영학과 19)

개 요



개요

프로그램명 : 고려대학교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교육일정 : 2021.04.19. ~ 2022.02.28.(10 개월)

교육내용 :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인권단체 고유의 활동 영역을 접하면서, 인권 취약층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인권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인권 감수성과 소양을 쌓는 프로그램

운영결과

<p>참여인원</p>	<p>45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기간 : 2021년 04월 ~ 2022년 02월 (10개월) 2. 인권단체 작성 '참여안내문' 제출일 : 2021년 04월 21일까지 3. 학생 모집 기간 : 2021년 04월 22일 ~ 05월 23일 4. 참가자 선발 : 2021년 05월 24일 ~ 06월 03일 5.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설명회 : 2021년 06월 04일 오후 5시~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단체 두 곳을 선정, 선발된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유의사항과 단체 소개 등을 진행
<p>프로그램 운영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민주연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 6. 자원활동 파견 기간 : 2021년 06월 07일 ~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파견 기간 동안 월간 활동일지, 결과보고서(수기) 제출 7. 자원활동 워크숍 : 2022년 01월 21일 오후 2시~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활동 결과보고서(수기) 발표 및 학생 간 소통 시간 진행 8. 활동모음집 배포 : 2022년 02월 중 배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를 모아 활동모음집 제작

학생 수기



국제민주연대

Yuldasheva Dilnoza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업무 : 관련 서류 번역, 미얀마 연대 1인 시위

국제민주연대는 미얀마 군부의 세력을 지원해주는 한국의 기업과 러시아 및 중국의 행보를 막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루어진 1인 시위에 한 달에 두 번 참여했고, 나머지 활동은 기사나 보고서 번역을 했습니다. 1인 시위는 미얀마 사태를 알리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심규태 (서어서문학과)

업무 : 보고서 및 탄원서 번역, 미얀마 연대 1인 시위

칠팔월의 더운 날씨 속에 혼자 시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음을 알았고 대사관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에게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어서 시위 하는 내내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당사가 점심시간이었는지라 식사를 하러 나온 많은 회사원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평온히 밖에 나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이러한 것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국 똑같이 삶을 살며 희노애락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스스로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과 존중을 가지고 이루어져야한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채영 (사학과)

업무 : 미얀마 연대 1 인 시위, 자료 분석 및 보고, 포럼 참석

제가 맡았던 첫 업무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 지지하는 국내·국외의 서명 운동, 모금 활동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국민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1 인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대사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속하면 할수록 그러한 시선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더 많은 대사관 관계자들이 저를 포함한 국제민주연대가 시위한다는 사실을 불편해하고 신경 쓰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바삐 길을 가다 멈춰 주의 깊게 시위 피켓을 읽어주시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에게 제 일처럼 감사했습니다. 저는 활동 종료와 별개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저 나름대로 국내, 나아가 국외의 불의를 파악하고, 이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이젠 “그저” 한 명의 목소리가 언젠가 세상의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윤희 (미디어학부)

업무 : 관련 서류 번역, 미얀마 연대 1 인 시위, CCC EAST ASIA SNS 운영

국제 민주 연대에서 다양한 서류를 번역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서명서가 있습니다. 포스코에 미얀마 군부와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서명서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포스코에 보내온 서명서에는 ‘인권실사’에 관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강연과 CCC EAST ASIA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예희 (보건정책관리학부)

**업무 : 노동자 인권에 대한 공부,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과 건강' 프로젝트
참여**

저는 노동건강연대에서 진행중인 활동을 한번 체험해보면서 노동건강연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Q&A 시간에는 대표님께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어도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20년간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 답변은 첫째로 공부를 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확신이 있었고, 둘째, 일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믿음이 있으며,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하는 활동가들의 연대가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아직까지도 삶에 있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연대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에는 이렇게 문제 의식을 늘 공유하는 단체가 있다는 믿음을 얻었고, 일상에서도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 태도를 배웠고, 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창구로 소통하고 활동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를 꼭 잊지 않고 활동해갈 것입니다.



반올림

박민준 (정치외교학과)

업무 : 활동기록 아카이빙 업무

저는 반올림에서 주로 2008 년 이후부터의 반올림 활동기록 등을 아카이빙 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기록들을 직접 정리하면서 저는 반올림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분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데까지 어떠한 과정과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때로는 글로,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보고서와 같은 자료들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은 자원활동이 마무리 된 이후인 지금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 보고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정지연 (사회학과)

업무 : 홈페이지 아카이브 작업, 2 세 산재 관련 출판 예정 도서 초고 preview

반올림에서 만난 상임활동가분들로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어렵듯이 배웠고, 자원활동에서 만난 친구들로부터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의 무게를 실감하고 다짐을 말로만 내뱉지 않겠다는 약속을 배웠습니다. 반올림은 활동의 2 막을 올리고 현재 태아 산재와 관련한 입법활동에 힘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학생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부터 노동 인권,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을 끄지 않고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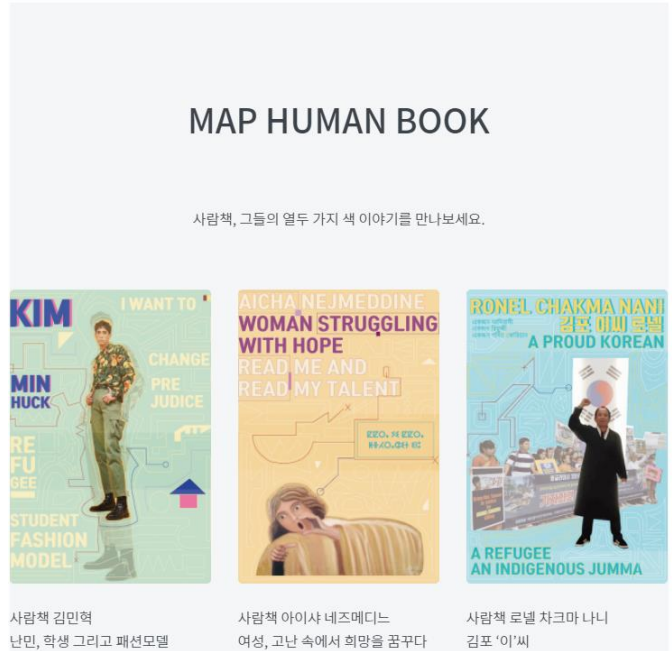
조규빈 (국제학부)

업무 :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Human Book Library)
활동

MAP 에서 저는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 (Human Book Library)
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사람책도서관이란 난민이 한 권의

사람책이 되어 독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는 특별한 도서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난민 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책도서관'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람책도서관 행사가 열릴 때마다 행사의 컨셉/목적과 잘 어울리는 사람책 분을 섭외하고, 사람책 분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 분을 섭외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난민 분들이 일반 시민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난민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자 사람입니다. 직접 난민 분들을 만나보고 소통해보니,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분 짓기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로 여기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권현지 (사회학과)

업무 : '누내생잡(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 보조 및 영상 자막 작업

공익법센터 어필은 5 가지 피해자 그룹(난민, 인신매매피해자,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해외한국기업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 운동, 인식 제고, 연대활동,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을 돕는 단체입니다. 저는 국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외국인 해양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실에 보낼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진행 중이었던 '누내생잡(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강제구금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구금 시리즈 영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구금된 이주자 및 난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부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저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분들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언론인권센터

이정현 (사회학과)

업무 : 언론인권지수 개발 및 언론모니터링

저는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 프레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프레임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관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니터링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객관성, 공정성, 인권 보호'라는 요소들은 언론 보도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보도대상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는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도 때론 틀릴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며, 객관성이나 공정성, 인권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택훈 (정치외교학과)

업무 : 범죄보도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범죄 보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해자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가해자의 신상 정보에 관해서는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과거 전과는 물론, 가해자의 학창시절, 군 생활, 평소 행실 등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적인 보도이기보다는, 인권 침해적인 보도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은, 결국 그 사회의 인권 보장의 정도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보도하기 위한 언론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하은 (국제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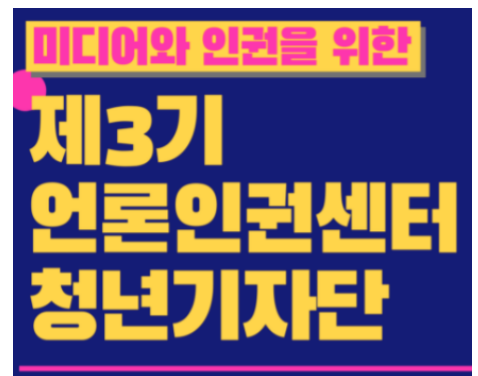
업무 : 청년기자단 C 팀 소속 자원활동

모니터링이 주가 되었던 이번 자원 활동은 본인에게 언론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콘텐츠 모니터링은 처음이었던 지라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본인의 모니터링/분석 결과에 확신이 서지 않았으나 언론 역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꾀해야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위 '메이저 언론'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할 점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론은 그 어떠한 정보망으로써 인권을 옹호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투영해야함을 의미하며 언론으로서 중심을 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해연 (사회학과)

업무 : 미디어 및 언론인권지수개발 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

저는 활동기간 동안 미디어 모니터링단, 정보공개운동본부, 언론인권지수개발, 총 세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미디어 모니터링단에서는 언론의 범죄 보도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기사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가 아닌 관찰자의 시각에서 범죄 보도를 바라보니 실제로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비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더라도 공개된 경우가 꽤 있었고, 특히 인터넷 언론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에 올라와 있는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게시글들을 인용 보도하며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활동을 통해 언론이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적절한 중용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언론의 보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시청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장혜선 (철학과)

업무 : 조작 간첩 사건 기록 스캔 및 목록화 작업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과거 군사정부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내몰려 형을 살다 오신 선생님들께서 이후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고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출연하며 뜻을 모으신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고려대학교-인권단체 연계 사업을 통해 진실의 힘에서 모집한 자원 활동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지원 사업과 조작 간첩 사건 재판 기록 아카이빙 사업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학에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저는 이 중에서 실제 재판 기록을 읽고 정리해 볼 수 있는 후자의 활동에 매력을 느껴 이 분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힘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 국가폭력이란 그 구체적인 형태만 달리할 뿐 비단 독재 정권 치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해결해야 할 국가폭력 사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나은 오늘을 위하여, 과거가 과거로만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과거의 일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
활동가를 찾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

강은형 (정치외교학과)

업무 : 의료동행, 생활지원 관련 연락, 난민 인터뷰 보조 등

피난처에서 활동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난민 동화책 속의 문구인 "You will be called Refugee, but your name is not refugee"라는 말이었습니다. 난민이라는 렌즈를 떼고 함께 활동하면서 저는 난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또래의 한 난민이 떠오르는데,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며 저 또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난민 분들을 '난민'이라는 범주에 가두기보다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활동가로서 부족함도 많았지만, 의료동행 봉사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주로 난민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통역하는 업무를 진행했는데, 영어를 배워서 저 스스로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영어를 배워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배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권유미 (사회학과)

업무 :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일자리 불평등' 연구팀 등



여론은 물론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이 겪는 위기와 투쟁을 당사자의 노력 부족과 민폐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에, 불평등과 노동 문제에 관심을 쏟고 연대하려는 것이 현실성 없고 유난스러운 일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도 학과를 막론하고 뜻을 함께하는 또래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연대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고민은 설렘과 의지로 가득 찼고 6개월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과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해석을 가미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며 토의할 기회가 열려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예진 (행정학과)

업무 : 청년 대상 인식조사, 인터뷰 등

처음 했던 일은 청년 대상 설문조사 기획 단계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비롯하여 소득이동성의 저하로 인해 첫 진입이 생애소득을 결정하는 상황, 교육-고용-복지의 악순환 구조,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 등 학교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통계자료, 논문, 책, 신문기사가 '텍스트'가 아닌 '누군가의 삶 자체'로 느껴지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강연에서도, 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지금 이곳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동안 나는 어떤 것들을 외면한 채, 몰랐던 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된 한 학기였습니다.



휴먼아시아

강채희 (사학과)

업무 : 청년 대상 인식조사, 인터뷰 등

휴먼아시아는 인권 연구, 교육, 인권기반 개발협력 사업수행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 인권신장에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협력 단체입니다. 휴먼아시아에는 연구교육팀/국제연대팀/그리고 국제개발협력팀이고, 모든 팀들의 업무 제반을 보조했지만, 특히 국제개발협력팀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주되게 참여했던 사업은 코이카 지원 사업인 필리핀 민도로 디지털 교육 사업입니다. 필리핀 민도로섬에 사는 소수민족 망얀족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교육의 기회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태블릿 PC 를 학생들에게 대여해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개월의 기간은 무엇보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교육 불평등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당 목표를 해결하고 싶다는 다짐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1 차 자료를 직접 접하는 것 또한 미디어에 제시된 통계치로만 보는 것보다 더욱 미시적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느낄 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권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NEWS FROM HUMAN ASIA

휴먼아시아

김경서 (경영학과)

업무 :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 정책연구 관련 업무

지난 6개월동안 휴먼아시아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연구, 교육 및 기타 사업 수행을 함께 했습니다. 활동 초반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업무를, 후반에는 정책연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휴먼아시아가 아시아 지역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휴먼아시아 내의 업무를 맡으면서 휴먼아시아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내, 국제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상훈 (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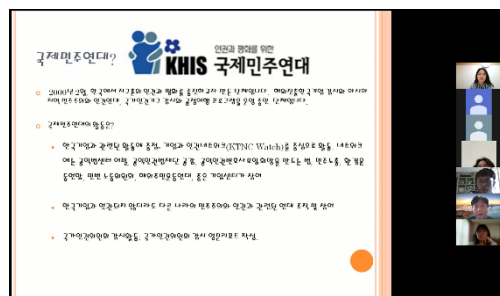
업무 : 리서치 및 자료 정리, 장표 제작

인권단체 활동에서 휴먼아시아를 만나게 된 계기는 "ESG", "기업과 인권"이라는 키워드 덕분이었습니다. ESG와 기업 컨설팅 등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기업에 대한 인권자문활동을 전개하는 휴먼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말그대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을 주로 다루는 다른 여타 인권단체와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도 기업들의(주로 공사) ESG 활동을 도출하고 이들의 risk를 주관적으로 도출한다거나 또는 기관들의 설문조사를 정리하고 구성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이유로 휴먼아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ESG를 더 자세히 알고, 인권이 어떻게 기업들의 HR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인권 현지표에 대한 지식과 ESG라는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은 생소한 개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 의의가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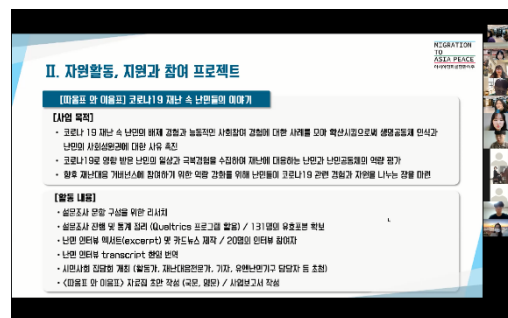
홍보포스터

온라인 홍보 사진



2021. 06. 04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2021. 06. 04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자원활동 워크숍 안내 포스터

2022. 01. 21 자원활동 워크숍 행사 사진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Korea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Gender Equity